논어 17편 양화 22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飽食終日，無所用心，難矣哉！不有博弈者乎？爲之，猶賢乎已！」

독음 · 자왈 포식종일 무소용심 난의재 불유박혁자호 위지 유현호이

쉬운 풀이(요약) · 배불리 먹고 하루 종일 마음 쓰는 일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바둑이나 장기라도 하는 편이 낫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飽 배부를 포 포 / 食 밥 식 식

終 끝낼 종 종 / 日 날 일 일 / 無 없을 무 무 / 所 바 소 소

用 쓸 용 용 / 心 마음 심 심 / 難 어려울 난 난 / 矣 어조사 의

哉 비로소 재 재 / 不 아닐 불 / 有 있을 유 / 博 넓을 박 박

弈 바둑둘 혁 혁 / 者 놈 자 / 乎 어조사 호 / 爲 할 위

之 갈 지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 / 賢 어질 현 현 / 已 이미 이 이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